

올 5·18 기념행사 키워드는 '정신 계승·신뢰 회복'

전야제, 광주선언 등 참여·연대 청년PM 등 미래세대 사업 주목 공법3단체 참여... 행사위 가입 미정

다음 달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광주 전역에서 펼쳐지는 5·18기념행사의 키워드는 '정신 계승'과 '신뢰 회복'이 될 전망이다.

청년·청소년이 주체가 돼 5·18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시민 참여 행사도 대폭 확대된다.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5·18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도 행사에 참여하기로 해 이번 행사가 오월 단체 신뢰 회복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이 함께하는 전야행사

30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위원회(행사위)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올해 5·18기념행사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5·18기념행사는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야행사, 청년PM, 청소년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5월17일 전야행사는 '해방광주(시민참여연장)'로 막을 올린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옛 전남도청과 5·18민주광장 및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 전시, 공연이 진행된다.

오후 5시부터는 풍물굿 '오월길맞이'와 80년 5월 가두행진을 재현하는 '민주평화

대행진'이 광주공원, 북동성당 등 광주 전역에서 시작된다.

이들이 오후 6시께 금남로로 행진해 들어오면 오후 7시 전야제가 본격 진행된다.

전야제에 앞서 오후 6시30분에는 제주 4·3, 여순항쟁, 세월호 참사 등 피해자들이 '광주선언, 2024'를 통해 사회적 소수·약자와 연대하고 오월의 가치를 실천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전야제는 그동안 하나의 주무대를 중심으로 공연을 펼쳤던 획일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금남로에 10개의 마당과 3개의 무대를 설치하고 시민이 공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배우와 관객 간 쌍방향 소통을 도모한다.

●미래세대 주도 사업 신설

올해 5·18기념행사의 핵심 사업으로 '청년PM(Project Manager)'과 '청소년사업'이 신설된 점에 눈에 띈다. 청년·청소년이 주체가 돼 직접 5·18행사를 기획·참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청년PM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꽃비 PM이 '모두를 위한 오월공론장 만들기 프로젝트(Everything, May, All At Once)'를 선보인다. 김꽃비 PM은 기획콘텐츠와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의 오월 이야기를 전달하는 '온라인 웹진'을 발행하고,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오프라인 공론장을 만들어 청년들의 다양한 담론을 한자리에 모으는 계획이다.

지역 청소년들도 청소년사업단을 구성해 영상 시정에만 국한된 학교 안의 오월

계기 교육을 벗어나 사적지 탐방 등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실행한다.

두 사업은 과거 일회성에 그쳤던 5·18 기념행사의 한계점을 보완해 오는 8월까지 지속 추진된다.

●공법3단체 참여 '신뢰 회복'

지난해 특전사동지회와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추진해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겪던 5·18 공법3단체도 이번 5·18기념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행사위 역시 5·18 공법3단체가 주관하는 추모제, 민주기사의 날, 부활제 등 행사에 협력한다. 다만, 5·18 공법3단체의 행사위 가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행사위는 "행사위가 5·18 공법3단체에 요구했던 것은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를 없애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면서도 "올해 슬로건에 맞게 '하나되는 오월'을 위해 조만간 5·18 공법3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5·18 공법3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께 심려를 끼쳤던 지난 일들에 대해 마음 깊이 유감을 표시한다"며 "제44주년 기념행사부터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5·18 공법3단체는 지난 30여년 동안 행사위 주요 참가 단체로서 시민단체와 함께 5·18기념행사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 왔으나, 지난해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일방 추진해 행사위에서 제명당했다.

강주비 기자 jubu.kang@jnilbo.com



감염병 예방 방역 실시

광주 북구 풍향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청년회원들이 30일 북구 풍향동 일대 주택가에서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경운기 깔려 중상... 영농철 사고 잇따라

경운기에 손가락 끼어 절단 농기계 사고 매년 500여건 ↑

농번기를 맞아 전남지역에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 오전 8시48분께 담양군 무정면 도로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던 60대 A씨가 경운기 벨

트에 손가락이 끼어 중상을 입었다. 발고랑에 걸려 넘어진 경운기를 세우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오후 3시5분 진도군 임회면 농가 마당에서 90대 B씨가 경운기를 조작하다가 갑자기 후진하는 뒷바퀴에 신체 일부가 깔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 2월11일에는 강진군 대구면에서

70대 C씨가 농기계를 다루다 숨졌다. C씨는 밭 흙더미에 빠진 경운기 바퀴를 빼내다가 작동 중인 엔진 구동 벨트에 옷가지가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이동이 늘면서 덩달아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전남도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경운기 사고는 광주 8건(사상 21명), 전남 2597건(2513명)이다. 연도별로 광주는 2019년 2건(9명), 2020년 3건(4명), 2021년 1건(1명), 2022년 2건(5명)이다.

전남은 2019년 635건(625명), 2020년 555건(536명), 2021년 553건(532명), 2022년 550건(530명)으로 해마다 500건을 웃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기계는 다른 일반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약한 점을 인식하고 사고를 대비해 안전수칙을 지켜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자도 농촌 지역을 지날 때 속도를 낮추는 등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